

EU, 중국산 태양광 반덤핑 유예...

12월6일부터 2년 동안 반덤핑관세 면제 ... 패널 가격급락 예방 기대

EU(유럽연합)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관세 부과를 2년 동안 유예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2월2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2월6일부터 2년 동안 합의내용을 준수하는 중국기업에 한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출 최저가격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2012년 9월부터 15개월 동안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2012년 11월부터 13개월 동안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U는 2013년 6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11.8%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었으며 8월6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균 47.6%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월 말 중국이 최저가격 등 수출가격을 재조정하겠다는 제안을 제시하면서 분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월6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가 유예됐고 최종 관세율 결정시한인 12월6일부터 2년 동안 유예조치가 연장 시행될 예정이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와트당 0.56유로(한화 약 820원)의 최저가격으로 수출하고 EU는 유럽 태양광 패널 수요량인 15GW의 절반 수준인 7GW까지는 관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안정적인 가격은 현재 생산 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자 결정에도 중요하다”며 “합의로 태양광 패널 가격의 급락 사태는 중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2/03>